



대극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2018. 8. 15.(나혜) 제2119호

성모 승천은 성모 몽소승천

노광수 그레고리오 신부 | 교구 사무처장



성모님은 영혼만 아니라 그 육신도 부패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땅속에 묻히고 썩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부활과 승천이 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의 육신은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오로지 하느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를 살려 낼 수 있는 분이시라면, 죽은 이의 육신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음은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누구보다 우선 내 어머니에게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부활·승천은 예수님 부활·승천과는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스스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리아의 부활·승천은 스스로가 아닌 그분에 의해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을 몽소승천(蒙召昇天)이라고 했습니다. ‘몽(蒙)’은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나타내는 한자로써 ‘부름’을 뜻하는 ‘소(召)’ 앞에 붙어 ‘불리어졌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즉 ‘몽소승천(蒙召昇天)’은 마리아가 아닌 하느님의 권능과 은총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성모 승천을 설명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인간적인 면을 말했지만, 사실 이 육적인 이유만으로 마리아가 그런 영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그 아들은 살아있는 어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마리아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어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입신출세한 아들의 어미가 정말 행복한 어미란 말입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복된 어미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어미’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면전에서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루카 11,28 참조)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음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마리아의 신앙이었고 과연 ‘성모 몽소승천(聖母蒙召昇天)’의 복은 하느님 말씀을 믿고 실행했던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패 없는 마리아의 부활·승천은 개신교가 생기기 훨씬 전, 4~5세기부터 갑론을박되어 왔지만, 1950년에야 비로소 교황 비오 12세께서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는데, 이는 성모 승천이 ‘어느 날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통 신앙의 틀 안에서 오랫동안 숙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승천은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마지막 아픔에 대한 계시지만, 하느님이 아닌 성모님의 부활·승천은 모든 사람의 부활과 승천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며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하느님을 향한 전 교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8월 15일, 일본 식민지 생활에서의 해방을 넘어 원죄조차 없으셨던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의 일상 죄에서의 해방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하느님 품안에서

임사비나 사비나·김소희 요엘 수녀 | 예수성심시녀회

치양콩 지역에는 사제가 저희 센터의 신부님 두 분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관할하는 공소가 15곳으로, 거리가 먼 곳은 자동차로 1시간이 넘게 가야 하고, 몇몇 마을은 도로가 좋지 않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공소라고 해도 신자들 수는 10명을 넘지 않고, 어떤 마을은 한 가족이 신자의 전부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마을 골목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마을들에는 항상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공소는 어른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은 공동체라고 하기에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마을 중 하나인 ‘매맘’이라는 곳에 네 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 다르고,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분이셔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신 신부님이 여러 번 센터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마을을 떠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셋째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이웃에서 관 하나를 얻어 신부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경찰과 의사를 만나서 사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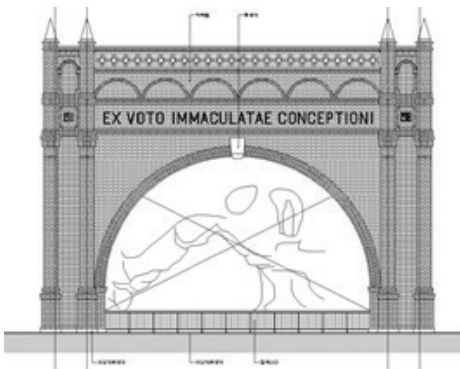
다. 누나와 형은 학교에 가고,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가 놀면서 장난삼아 비닐봉지를 머리에 썼는데, 그 비닐이 벗겨지지 않아 질식사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집에 갔더니 죽은 아이는 집 앞 흙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고 엄마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누나와 형은 저희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몽족 전통 모자를 쓰고 누워 있는 아이는 꼭 잠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맡에 문제의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이불 채 들고 내려와 준비해 간 관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옷과 장난감까지 넣었지만 공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소에서 고별식을 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를 산속에 묻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를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야 했는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엄마가 아이 하나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아이들 모두를 데리고 저희 센터로 왔습니다. 한동안은 죽은 아이 사진을 들고 다니며 불안해하던 아주머니도 많이 건강해졌고, 여기에 온 이후에야 태어난 지 3달이 넘어 출생신고를 한 막내도 하루가 다르게 살이 쏠쏠하게 오르고 키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보고 귀신이 보인다고 울던 누나와 형도 친구들 속에서 행복해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너무나 짧은 3년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난 그 아이도 하느님 품안에서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관문**



성모당의 건축구조 I

평지에 조성된 성모당은 오른쪽 뒤가 약간 꺾여 들어간 장방형 형태의 동굴입니다. 동굴 내에 제대가 있고, 정면 상부 콘크리트 인공 암벽 위에 성모상이 있습니다. 성모상 뒤편의 삼각형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뒤편 지붕은 높은 경사지붕과 낮은 경사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뒤쪽 벽돌벽면에 철제 사다리를 고정 설치했습니다.

성모당은 적벽돌 조적조로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벽 위에 트러스를 걸치고, 트러스 사이에 각재를 대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울퉁불퉁한 비정형의 자연 동굴 내부 모습을 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정면은 로마 개선문처럼 중앙에 대형 아치를 틀고, 좌우 벽에 수직성이 강한 벽돌조 붙임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대형 아치 상부의 상하 두 줄의 인방이 붙임기둥과 접속되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입면을 형성했습니다. 정면과 좌우 측면 벽돌조 내력벽 두께는 495mm로 지붕 트러스에 걸린 하중이 내력벽을 통해 화강석 기초로 전달했습니다. 즉 화강석 기초 위에 495mm 두께로 벽돌을 쌓고, 750×750mm의 9개 각기둥으로 내력벽을 만들었습니다. 지붕틀은 목조 트러스 구조이며, 그 위에 골합석을 덮어 마감했습니다. 각 모서리에 버팀벽과 수평 띠를 구성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붉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정면은 회색 벽돌을 사용했고, 양쪽에 버트레스(Buttress : 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벽 면의 곳곳에 세로로 튀어 나오게 해 벽을 얇게 만들고 장식 효과를 주는 장치)를 각각 세우고 그 사이에 큰 반원 아치를 설치해 좌우 대칭을 이루었으며, 아치의 중앙엔 화강석 이맞돌을 두었습니다. 아치 위에 좁은 간격으로 3줄의 코니스(Cornice : 건축 벽면을 보호하거나 처마를 장식하기 위해 벽면에 수평이 되도록 하여 띠 모양으로 튀어 나오게 만든 부분)를 두고, 그 사이에 라틴어와 작은 반원 아치 6개로 장식했으며, 나머지 벽면은 붉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벽면 상단에 24개의 장식 벽돌을 쌓은 패러펫(Parapet : 홍벽, 발코니·지붕·교량 등의 난간)을 두었고, 각 버트레스 위에 피너클(Pinnacle : 서양 중세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첨탑, 암벽이나 암벽의 돌기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정면 기둥 사이는 총 15.06m이고, 버트레스 기둥 사이는 1.31m입니다. 정면의 큰 반원 아치가 있고, 정면과 측면에 작은 반원 아치가 있는데, 아치형 회색 벽돌을 별도로 만들어 시공했습니다. 벽돌 줄눈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했고, 외부 치장 부분은 백색의 모르타르로 마감했습니다. 정면부에서 반원형 아치의 높이는 7.25m이며, 이맞돌 화강석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면의 폭은 15.06m이며, 버팀기둥 간격은 750mm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원형 아치의 간격은 10.89m입니다. **사진**



성모님의 곡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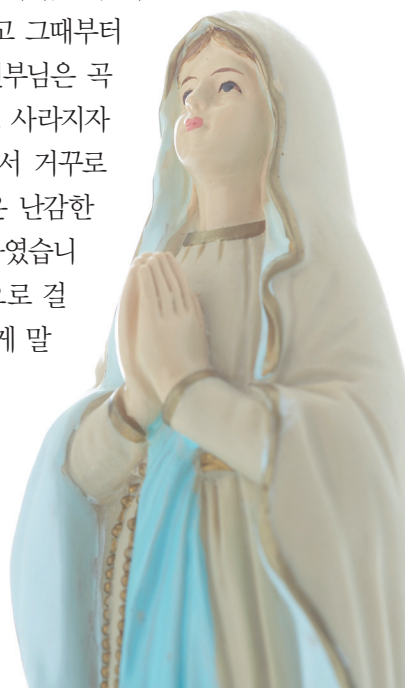
마술과 광대놀음을 하며 거리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곡예사가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던져 주는 동전 몇 푼으로 살아가는 그는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단속반이 뜨거나 장마철에는 그마저도 일을 할 수 없어 자주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섬기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내린 비 때문에 곡예를 하지 못한 그는 요술 도구들을 담요에 말아 팔에 끼고 “오늘은 돈벌이를 못했으니 저녁을 굶어야겠구나.”하며 힘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부님, 저는 곡예사입니다.”하고 인사를 드리며 “언제나 하느님과 성모님께 찬송과 기도를 바치며 사시는 신부님들이 부럽습니다.”라고 하였다. 남루한 곡예사를 측은하게 생각한 신부님은 그를 성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곡예사가 따라간 성당에는 마침 성모 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신자들이 저마다 성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성모님에 대한 책을 쓰고 계셨고, 어떤 이는 성모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칭송하였고 또 어떤 이는 아름다운 자태의 성모상을 조각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성모님에 대한 시를 짓고 음악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모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술과 광대놀음밖에 할 줄 모르는 곡예사는 성모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혼자 성당 뜰을 배회하며 흐느껴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곡예사가 급하게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밖으로 나온 그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 되었고 그때부터 곡예사의 얼굴에는 슬픔대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상하게 생각한 신부님은 곡예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예사가 또 성당 안으로 사라지자 신부님은 살며시 성당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 곡예사는 성모님 앞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접시를 돌리며 혼자 곡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성스러운 성모님 앞에서 곡예를 하다니...”하며 그를 말리려 하였으나 바로 그때, 가만히 서있던 성모상이 움직이더니 사뿐사뿐 곡예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푸른 옷자락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땀과 눈물을 받아 참으로 기쁘단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

▲ 입당송

마리아님,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으니,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제1독서 [1역대 15,3-4,15-16; 16,1-2]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화답송

-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설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제2독서 [1코린 15,54-57]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1,27-28]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영성체송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10ㄱ-1ㄴ]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답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말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미사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3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8월 18일(토) 11:00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9.1~2 / 10.13~14
3박 4일: 8.27~30 / 9.6~9
8박 9일: 9.12~20 / 10.17~25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10.13(토) 14:00~14(일) 17:00
장소: 아론의집
회비: 1부부 15만원(비신자, 냉담자 환영)
준비: 미사, 수건, 차약, 개인컵, 편한신발
문의: (010)4204-1522 / (02)777-177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8.31~9.2 / 9.11~13 / 9.30~10.2
10.4~7 / 10.10~12 / 10.16~19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베네딕도 청년성가대 7기 모집

연습: 월 19:30 정기공연 준비
대상: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주최: 토틈포교베네딕도대구수녀원
문의: (010)5918-3014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강좌 및 미사

일시: 9.7 매주 금 10:00~12:3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주제: 바오로서간 2부 3편 필리, 콜로새서
수강료·자료는 무료제공, 미사있음
문의: 양은철 신부, (010)9333-6260

카리타스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노래교실, 민요교실, 댄스교실, 웃음치료,
요가, 실버체조, 오키나나연주, 산책 등
활동기간: 연중 / 문의: 256-1120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 모집

일시: 9.11~11.3 매주 화, 토
주 2회(선착순 접수)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구: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마감: 8.31(금)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싶은 분

문의: (010)7470-7966

<http://cyberbible.casuwon.or.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가대의료원 노동조합 총파업

노동조합 총파업으로 의료원 방문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상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리스토리
www.LeeStory.kr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외 다수출연
20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산나
010.6571.3385 | 053.586.3220
성서 계대 동문 맞은편
국내-대구 탈서 0003호
국제-대구 탈서 0002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얕이 얕을 이긴다!
청도 윤성요양병원
암 수술 후 재활·통증 치료 전문
면역치료 14년 054)373-7400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010.4505.6355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세해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 루가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네거리
사남시장 맞은편
T. 555-5520

중풍/치매/재활/말기암/노인성질환
명덕효요양병원
· 24시간 간병서비스·경제적 치료비
·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 실시
· 특수 고주파온열치료기 도입
병원장 변 숙 영(세라피나)
명덕역-교대역 사이 ☎ 053)476-0000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발아플덴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유리피판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umou
무우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화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테파니아)

행사 | 모임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내 영혼의 찬미'

일시: 9.3(월) 19:30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대상: 전석 무료 초대

문의: (010)3463-5191 / (010)3787-7070

교육 | 모집

4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9.6~10.4 매주 목 9:30~14:30

장소: 꾸르실로교육관(남산동)

대상: 모든 어머니 / 마감: 9.3(월)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경 공부와 주일 복음 읽기

일시: 9.10~12.3 매주 월 14:0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제1강의실

강사: 황하철 신부 / 신청비: 5만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강좌

일시: 9.13~10.25 매주 목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7회)

강사: 김혜숙(막시마) 선교사

교육비: 5만원 / 선착순 100명

신청: 교구 청소년국, 250-3067

제43회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일시: 10.9(화) 9:00 개회식

장소: 대가대 효성교정 테니스장

마감: 8.28(화)

문의: 교구 사목국 평신도담당, 250-3057

2018 소람 상담사목교육 하반기 모집

내용: 상담심리기초, 상담심리실습,

가족의 재발견(가족관계학), 성격심리학

신청비: 과목당 5만원

한 과목당 30명 제한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바이올린: 화 18:30~19:30

생활영어: (초급) 화, (중급) 목

성가반주: 수 (오전, 오후) 토 (오전)

첼로: 목, 금 15:00~18:00

문의: 476-6211(교대역 3번 출구)

앞산밀북카페 9.3(월) 개강

(화) 10:30 불교이야기: 최동석 신부

(수) 10:30 인간, 그 전모: 전현호 신부

(목) 10:30 '장자' 읽기: 최성준 신부

(목) 14:00 영어회화: 양수산나 선생

문의: 622-1900

웹툰교육생 모집(무료)

일시: 매주 토 13:30 / 16:30

장소: 대구SOS어린이마을(검사동)

대상: 초·중·고 학생(선착순 20명)

접수: <http://daegu.koreasos.or.kr>

게시판 참조 / 문의: 983-3154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성가반주오르간, 난타·교전무용·장구,

왕초보관광영어,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사범자격과정꽃꽂이·다레, 원어민영어, 발성법, 가곡성가, 규방공예, 수지침, 요가, 멋진사진촬영 / 신청: 254-6115

가톨릭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프란치스카눔 성경공부 모집

주제: 이스라엘왕 다윗 이야기

2사무 1~12장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수사 신부

문의: (070)4266-0047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국악성가연구소 국악성가 캠프

일시: 8.31(금)~9.2(일) 2박 3일

장소: 안동농은수련원

참가비: 20만원(교통비 별도)

문의: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소,

(010)2279-0255

채용 | 안내

교구 청년국 직원 채용

업무: 홈페이지관리 및 회계

자격: 운전, 컴퓨터 활용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422-6692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주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개원 17년째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전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내거리 ☎ 053)628-4111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광복시매 연구회 회장 역임
개령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위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4~5
www.kisaneye.co.kr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위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7병동 오픈 / 내시경실 오픈 / 일일검진·암검진 실시
Happy! 정신민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대표전화 ☎ 053)670-6000